

인지편향이 존재하는 집단 간의 통일인식 차이 연구

한승조*, 배영민**, 이세호***, 김수연***, 최현주*, 최현호*
*국방과학연구소, **김천대학교, ***육군
e-mail: seungjo1651@naver.com

(A) Study on Reunification Perception between Groups having Different Cognitive-Bias

Seung-Jo Han*, Young-Min Bae**, Se-Ho Lee***, Soo-Yun Kim***,
Hyun-Joo Choi*, Hyun-Ho Choi*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Gimcheon University, ***ROK Army

요 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unification perception among groups with different cognitive bias(anchoring bias) through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assumes that cognitive bias occur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N. Korea provided in school education, and that the cognitive bias formed in youth create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 Korea and reunification. For empirical study, a survey of reunification awareness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used, and the two groups are divided into A-group that chose "anti-communism or security" and B-group that did "reunification interests, multi-culturalism and understanding North Korea" according to N. Korea content which was encountered in school education during adolescence. A-group recognized N. Korea as a hostile target even after becoming an adult, while B-group regarded N. Korea as a on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This analysis illustrates the existence of cognitive bias between the two groups because of N. Korea content which was given in school education. A-group had a lower percentage than B-group in terms of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to S. Korea and the need for more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N. Korea.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acceptance of N. Korean defectors. This research result could be a reference to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policies relating to reunification in that early school education affects reunification awareness and perception related with N. Korea even in adulthood.

KeyWords : Cognitive Bias, Anchoring Bias, Reunification Awareness, N. Korea. School Education

1. 서 론

인터넷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이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는 스마트 폰 등의 ICT 발달에 따라 정치 및 사회 분야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 분야에 확정편향적 성향을 보유한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가짜뉴스나 팩트가 미약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1]

유희정과 이숙중이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갈등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계층 이념노사 갈등이 아직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갈등의 해소는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 20세기 중반 이후의 이념 대결 및 전쟁으로 인하여 이념갈등을 논할 때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이후 냉전시대를 경험한바 있으며, 현재는 2018년 이후 미북 및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남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6.25 및 베트남전을 포함한 냉전의 산물을 몸소 경험한 세대로부터 이와는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통일이 달성되거나 현 남북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야만 북한과 관련된 이념의 차이가 현재보다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집단이 존재할 때, 인식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는 이견(異見)되는 이슈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 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정치사회문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군무원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군 전체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할 경우 각 집단의 복무 이유이나 군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일부 계층에 치우친 그릇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 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확증편향에 대한 것도 인자사회학적 학술적인 용어로 정립이 필요하다. 확증편향이 한 국가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나 20세기 전반기의 민족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는 단순히 한 국가나 민족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이 존재할 수도 있었고, 종교적 관점에서도 신도들의 단결력과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세력에게는 위와 같은 이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점보다

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증편향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발생 원인을 안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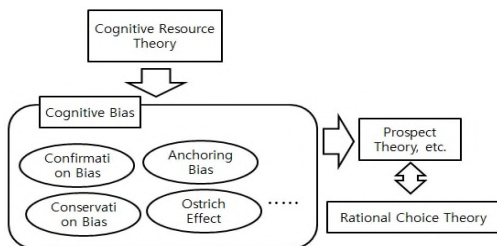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생애 주기 기간 중 북한에 대한 확증편향(혹은 인지편향)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통일인식의 차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2.1. 인지편향, 확증편향, 기준점편향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측면에서 인지편향(Cognitive Bias)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한 추론을 근거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말하며, 인지편향의 일부로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있다고 본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기존 사고나 경험에 비추어 일치성이 많은 것만 받아들이고, 일치성이 부족한 것은 배척하는 인간의 심리이다.[3] 즉, 인지편향의 일부로서 확증편향은 본인의 사고에 대한 집착이 더욱 공고화되고 배척성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인지편향의 한 부분인 기준점편향(Anchoring Bias)은 인간에게 초기에 제공된 정보가 이후에도 인지 및 판단의 근거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생의 전체 주기 중에서 초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학습강요 혹은 경험은 기준점편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림 1] 인지편향 및 관련이론

확증편향, 기준점편향을 포함한 인지편향은 뇌 과학(Brain Science)과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즉, 인지적자원이론(Cognitive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별로 뇌에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능력이 정해져 있으며, 개인의 뇌 능력에 부하(Loading)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쉬운 방법으로 인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4] 즉, 인간은 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 본능적으로 노력이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합리적인 방식보다는 쉽고 빠른 방법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다.[5]

인지편향과 관련된 사고과정은 단순하면서 뇌에 대한 인지적인 부하가 적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나 추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 명료한 구호나 예술적인 표현, 반복적인 교육이 인지편향을 발생하는데 효과적이다.

인지편향은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비이성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 이론과 연관되어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있으며, 이는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다는 점을 활용한 이론이다. 전망이론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손실영역(Loss Area)에서는 위험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익영역(Gain Area)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태도가 발견되어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시 관련 인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 존재하여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수행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인간의 본성 중의 하나인 인지편향은 이미 생성된 것에 대한 교정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평생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교정의 효과가 있더라도 다시 원래의 인지편향으로 회귀(Regression)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확증편향보다는 인지편향, 특히 기준점편향과 관련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느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념이 강한 확증편향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부정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편향이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현상이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지편향의 범위를 더 좁힌다면 기준점편향이 더 적합하다.

또한 인지편향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사이에서 본능으로부터의 생성과 학습이나 경험으로부터의 발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인간은 학습이 되기 전부터 불을 두려워하고, 뱀을 보면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은 본능으로부터의 생성이며,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좌우를 살피는 행동이 학습이나 경험으로부터의 발생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은 본능에 의한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습에 의한 생성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Wang & Sim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편향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유아기부터 발생하긴 하지만 그 영향이 생애 전 주기에서 크지 않으며, 사회활동이 시작되는 성장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교정 또한 성장기의 교육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6] 하민수의 연구에서도 사회 및 교육학적으로 인지편향이 생성되고 공고화되는 시기를 청소년기의 학창시절로 보고 있으며, 잘못된 인지편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교육, 특히 청소년기 학창시절에 바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연구한 바 있다.[3] Mannheim은 청소년기에 접하는 특성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고 경험을 공유하면 비슷한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갖추게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동질의 집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예, 386세대, 디지털 세대 등)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7]

2.2. 통일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일정한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

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한반도 환경에서 국제정치 및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마일중러 주변국과의 정치 및 군사적인 관계, 국내에서의 대 북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통일 인식은 시간에 유의한 관계를 지닌다.

통일인식의 문제는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현진은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를 전쟁 세대민주화 세대정보화 세대로 구분하였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연구하였다.[8] 반면 김병조는 통일세대를 서현진의 구분보다 세분화하여 체제경쟁 세대민주민족통일 세대탈냉전통일 세대신자유주의통일 세대로 구분하였으며, 서현진의 연구와 동일하게 세대가 젊어지는 신자유주의통일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낮게 공감하고, 통일에 무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9] 또한 세대별로 해당 시기의 사건으로 인해 학교교육 과정이 변경되었고, 이것이 통일인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상기 세대구분에 따른 통일인식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일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지편향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김병조의 논문은 주로 세대별로 남북관련 사건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학교교육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에는 연구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인지편향이 어떻게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승조의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수용성이 통일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있다.[10]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이 통일인식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였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지편향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인지편향과 통일인식 관련 실증적 연구

3.1.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가설의 채택 및 기각여부를 알아본다. 두 개의 비교 그룹은 학교교육을 통해 “반공과 안보”를 주로 교육받은 집단(A group)과 “탈북자와 다문화, 통일이익”을 주로 교육받은 집단(B group)으로 하였다.

첫째, 상기 A, B group 간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H1). 둘째, 두 그룹 간 북한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H2). 마지막으로, 상기 A, B group 간에는 북한이탈 주민 수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H3).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집단 내에 존재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대업 및 박재환의 연구에서 설문결과가 DB로 활용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통해 인지편향의 정도를 측정할 바

있다.[11] 연구에서 인지편향을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보고, 현상유지편향 등의 정도를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로 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현상유지편향은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에 선택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1] 이는 Bhatta와 Shah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고,[12] 용어만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현상유지편향과 관련된 질문은 기준점편향과 유사한 것이다.

위 연구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의 존재여부는 설문을 통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음을 함의(含意)하고 있으며, 추후 연구방향(Further Research Area)으로 편향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함을 병행해서 말해주고 있다. 위 H1 ~ H3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18년에 수행되었던, 통일인식 조사 자료(1,200명 설문 응답)를 통계적으로 활용하였다. 상기 Raw 데이터 사용에 관해서는 통일평화연구원(https://kossda.snu.ac.kr)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이 이용된다.

3.2.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

인식편향(기준점편향)의 그룹을 구분은 서현진의 연구와 김병조의 연구를 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서현진의 세대 구분에서 민주화 세대나 정보화 세대 모두 청소년기의 학교교육에는 “반공과 안보”뿐만 아니라 “통일이야탈북자와 다문화북한에 대한 이해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김병조의 세대 구분도 동일하게 탈냉전통일 세대나 신자유주의통일 세대에도 위와 같은 혼재된 경험이 존재하다.

따라서 두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2018년 설문조사 당시의 “학교교육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교육받았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인식과 관련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표 1에서와 같이 A그룹은 주로 “반공 및 안보” 위주의 교육에 중점적으로 노출된 그룹이며, B그룹은 주로 “북한 이해, 탈북자나 다문화,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집단(설문자의 주관적 선택)이다.

[표 1]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룹 구분

구분	나이(평균)	나이(편차)	표본수
A그룹	49.9	3.24	778
B그룹	38.2	3.03	422

인지편향이 존재하는 두 집단 간에 통일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높다고 해석한다(예, 1 : 매우 이익 기대 ~ 4 :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 분석결과 A, B 그룹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다. 따라서 가설 H1은 기각되지 않으며, 인지편향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A그룹에서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B그룹보다는 낮았다.

[표 2] 통일인식 차이 :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이익

구분	응답인원	평균	편차	독립표본 t 검정
A그룹	778	2.41	0.77	p-value(0.014) < 0.05 Not Rejected
B그룹	422	2.30	0.73	

가설 H2와 관련하여 두 그룹 사이에서 북한과의 타협과 대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표 3에서 평균값이 작을수록 타협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예, 1 : 매우 가능 ~ 4 : 전혀 가능하지 않음). 분석결과 북한은 타협과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가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낮다.

[표 3] 통일인식 차이 : 북한과 타협과 대화 가능성

구분	응답인원	평균	편차	독립표본 t 검정
A그룹	778	2.46	0.65	p-value(0.019) < 0.05 Not Rejected
B그룹	422	2.37	0.62	

최근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대중매체를 통한 잦은 노출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인지편향과 관련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정권 및 군부에 의한 세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이탈주민은 군에서 생각하는 적에 가까운 집단인 북한 정권과 군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대부분 일반 주민이 우리나라에 이탈하여 정착한 시민을 의미한다.

표 4의 평균은 5-point likert scale을 적용한 것으로 5에 가까울수록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하며, 질문은 “이웃주민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였다. A그룹과 B그룹 사이의 북한 이탈주민 수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A그룹에서는 인지편향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한 학교교육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0년대 들어서 A, B 그룹 모두 동일하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쉽게 북한 이탈주민들을 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통일인식 차이 : 북한 이탈주민 수용도

구분	응답인원	평균	편차	독립표본 t 검정
A그룹	778	3.30	0.76	p-value(0.554) > 0.05 Rejected
B그룹	422	3.43	0.82	

가설 H1, H2, H3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에서 주로 접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성인 이후에도 통일인식에 차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및 북한의 국가적 차원이나 통일 문제에서의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은 가설 H1, H2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것은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나 현재에도 안보(Security)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주는 북한은 정권 및 군부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는 점을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지 않았

기 때문에 성인 이후에도 인식이 이어지는 인지편향(기준점편향)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지편향, 특히 기준점편향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편향으로 인해 성인 시기에 통일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북한에 대한 상대적 적대적인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집단(A)에서는 협력적 인지편향을 지닌 집단(B)에 비해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았고, 북한과는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 수용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에 따라 성인 이후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미경, “뉴스 신뢰도, 뉴스 권여도와 확증증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2, pp. 5-48, 2019.
- [2] 유희정, 이숙중,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pp. 39-80, 2016.
- [3] 하민수, “합리적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인지편향과 과학교육을 통한 탈인지편향 방법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6), pp. 935-946, 2016.
- [4] 한승조, 김선욱, 구교찬, 이근주, 조민수, “VR 영상이 신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손 안정성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pp. 391-400, 2017.
- [5] Kahneman D., Slovic P., Tversky, A.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6] Wang, X. T., Simons, F., Bredart, S., "Social cues and verbal framing in risky choic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4(1), pp. 1-15, 2001.
- [7] Mannheim, K.,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1952.
- [8]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29(1), pp. 93-127, 2017.
- [9]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pp. 3-41, 2015.
- [10] 한승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다문화 수용성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pp. 1-7, 2017.
- [11] 김대엽, 박재환, “창업가의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과 조절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pp. 95-112, 2020.
- [12] Bhutta, N. T., Shah, S. Z. A., “Do Behavioural Biases Impact Corporate Entrepreneurship, Agency Cost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Pakistan Journal of Commerce and Social Sciences, 9(3), pp. 761-798, 2015.